

# 통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23호 [주간 제2649호]

주제 110  
(2021)년 6월  
5일  
토요일  
음력 4월 25일

절세위인의 향도 따라 삼천리  
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 공화국은 존엄높은 인민의 나라

본설

해배동포들의 마음의 기쁨으로 되고있는 참다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언제나 인민을 위한것, 인민적인것이 가장 정의로운것으로 되고 최우선시되는 존엄높은 인민의 나라로 세인의 경탄과 부러움을 자아내고있다.

공화국에서는 정치와 경제, 군사도 오직 인민을 위한것으로 되고 문화와 도덕도 인민적인것이 장려되고있으며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고있다.

공화국은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내세우고 인민의 존엄과 지위를 최상의 높이에 올려세우는 인민의 나라이다.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는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의 존엄과 권익을 절대적으로 옹호하고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정치이다.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는 인민대중의 존엄과 권익을 절대적으로 옹호하는 정치방식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데서 인민의 존엄과 권익을 지키고 보장하는것보다 중요한것은 없다.

인민대중의 존엄은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에 의하여 최상의 경지에 올라서게 되었다.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기본정치방식으로 하고있는 공화국에서는 언제나 인민들의 자주적존엄과 리익을 옹호하기 위한 사업에 선자적인 힘을 넣어왔다.

은 사회에 인민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기풍이 차넘치며 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로 내세우고 인민의 권익을 견결히 수호하려는것은 공화국정부의 드림없

는 의지이다.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는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정치방식이다. 인민대중은 력사의 창조자이고 사회발전의 동력인것만큼 정치는 응당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정치로 되여야 한다.

공화국은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철저히 구현하여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최상의 높이에 보장해 주고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것을 최고원칙으로 내세우고있다.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그것을 시행함에 있어서 인민들의 요구와 의사를 존중하고 첫자리에 놓고있으며 하나의 창조물을 일떠세우도 인민들이 바라고 실질적으로 덕을 볼수 있게 일떠세우고있다.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는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하에서 보람찬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는것이 공화국인민의 자랑찬 모습이다.

세상에는 나라가 많지만 진정한 나라로 인민들과 고향을 같이하고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나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나라는 오직 공화국뿐이다.

공화국은 가장 철저한 인민적시책이 실시되고있는 참다운 인민의 나라이다.

나라의 근본은 인민이며 따라서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참담하게 복무하게 하는 나라만이 진정한 인민의 나라라고 할수 있다.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실시한다고 하고있지만 그 어느 나라도 국가와 사

회의 모든것이 인민의 요구와 리익실현에 복무하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로 되지 못하고있다.

오직 공화국에서만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인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제도적으로 철저히 담보해주고있을뿐 아니라 모든것이 인민대중에 참담하게 복무하게 하고있다.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공화국의 인민적성격은 인민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인민적시책에서 뚜렷이 표현되고있다.

공화국에서는 무로의 무교육제와 무상치료제를 비롯한 가장 우월하고 선진적인 시책들을 일관하게 실시하면서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거창한 사업들을 끊임없이 펼쳐나가고있으며 인민의 아픔을 가셔주기 위해서라면 억

만금의 재부도 통채로 기울이고있다.

모든것이 어렵고 부족한속에서도 인민들은 국가의 고마운 혜택속에서 마음껏 배우고 건강을 증진하며 건전한 물질생활과 혁명적이고 량만에 넘친 문화생활을 누리고있다.

평범한 사람들이 국가정사를 논하는 대의원, 시대의 영웅들로 자라나고 아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떠받들고있는 바로 여기에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조직, 진정한 인민의 나라로서의 공화국의 참모습이 있다.

공화국은 강위력한 군력으로 인민의 존엄과 운명을 굳건히 지켜주고 빛내여주는 인민의 나라이다.

침략자들의 발굽밑에 무참히 짓밟히고수난과 굴종을 강요당할수밖에 없었다는것은 인류사가 남긴 피의 교훈이다.

적지 않은 나라들에서 제국주의자들의 강권과 전횡, 침략과 간섭으로 인해 나라의 정치적안정과 사회질서가 파괴되고 인민들이 불행과 고통에 시달리고있는 비극적인 현실은 군력이 약하면 인민들의 존엄과 권리는 물론 운명조차 지켜낼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군력이 강하면 령토와 인구가 작은 나라라고 해도 세계가 우러르는 군사강국이 될수 있고 인민들이 존엄과 영예를 높이 떨칠수 있다.

이것은 공화국의 력사와 현실을 통하여 명백히 확증되었다.

오늘 공화국인민이 지니고 있는 높은 존엄과 긍지는 강위력한 군력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그 어떤 제국주의강제도 감히 넘보지 못하는 무적의 강국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려는 공화국인민이야말로 가장 복받은 인민, 가장 존엄높고 긍지높은 인민이다.

령토가 위대하여야 나라도 위대하고 인민도 위대해진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독창적인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에 의하여 존엄높은 인민의 나라로 그 이름 떨치는 공화국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어 강위력한 사회주의조선, 위대한 인민의 나라로 더욱 빛나고있다.

희세의 위인들을 대를 이어 높이 모시어 공화국은 세상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존엄높은 인민의 나라로 영원히 자랑떨칠것이다.

본사기자 홍범식

## 조선의 밝은 미래를 확신한다

국제사회계가 격찬

《후대들을 사랑하라, 그리고 승리를 확신하라! 이것이 김정은령도자의 후대관, 미래관이다.

아이들에 대한 사랑의 감정은 가장 헌신적이고 적극적이며 지어낼수도 강요할수도 없는 순결하고 아름다운 감정이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와 김정일각하께서 지니시었던 후대관은 존경하는 김정은령도자에 의하여 훌륭히 구현되고있다.》

이것은 영국주제사상연구소조서기장의 찬사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뜨거운 사랑의 품속에서 나라의 역군으로 무럭무럭 자라나는 공화국어린이들의 행복찬 모습은 외국어의 한 인사만이 아닌 국제사회의 찬란과 부러움을 자아내고있다.

민중공고주제사상연구소전문위원 회 인터뷰트홈페지는 어린이들의 왕국인 조선은 아동친화력이 높은 수준에서 보장된 나라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에서는 모든 어린이들이 국가가 보장하는 훌륭한 교육제도 하에서 마음껏 배우며 미래의 주인공들로 자라나고있다.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조선의 어린이건강보호제도에서 보다 특징적인것은 아이들의 정신육체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 교육과 보건

을 결합시키고 그것을 정확화하여 실현한것이다.

이러한 나라는 세계에 조선밖에 없을것이다.

네팔신문 《스리미끄》는 다음과 같은 글을 게재하였다.

새 세대들을 사회발전의 참담계 이바지할수 있게 키우자면 훌륭한 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는것이 중요하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제를 실시하도록 하시고 교육자들을 사회적으로 더욱 존대하며 우대하도록 하시었다.

이것께서는 학생가방과 교복생산을 이르기까지 세심한 지도를 주시었다.

어린이들의 건강증진은 물론 그들을 위한 모든 사업은 조선로동당의 최우선관심사로 되고 있다.

하기에 오늘 조선의 그 어디에서나 《세상에 부럽없어라》의 노래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고있다.

몇십년 아니 세기를 이어가며 조선의 어린이들은 이 노래를 부르고 또 부를것이다.

국제사회는 조선의 밝은 미래를 확신하고있다. 에필르트의 인터넷신문 《이벤트》는 이런 글을 게재하였다.

6월 6일은 조선소년단이 창립된 날이다.

조선에서는 해마다 이날을 의의있게 경축하고있다.

조선소년단창립 66돐경축 조선소년단 전국연합단체대회는 국제사회의 주목을 끌고있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경축행사를 전례없는 규모에서 성대하게 진행하도록 깊은 관심을 돌려주시고 나라일에 이처럼 분망하신속에서도 몸소 행사에 참석하시어 축하연설도 하시었다.

후대들에 대한 사랑을 천품으로 지니신 절세의 위인을 령도자로 모시고있는 조선의 학생소년들은 나라의 왕으로, 희망과 미래의 전부로 떠받들리고있다.

리비아조선친선협회 인터넷홈페지도 자애로운 어머니의 품속에서 조선의 학생소년들이 이 세상 만복을 다 누리고있는데 대해 전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조선소년단창립 경축행사에 참가할 평범한 근로인민의 아들딸들을 위하여 사랑의 비행기가 날고 특별열차가 달리는 경이적인 현실은 다른 나라들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다.

김정은령도자께서 소년단체들과 한치의 간격도 없이 이러한 고 없이도 음악회도 관람하시며 거둬 자리를 옮겨가시며 사랑

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시는 숭고한 화복은 만사람의 심장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후대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이 아끼지 않으시는 김정은령도자의 품속에서 조선의 새 세대들은 미래의 주인공들로 씩씩하게 자라고있다.

네팔신문 《아르판》도 이렇게 강조하였다.

김정은각하께서 제일 기쁜 순간은 아이들을 위해 무엇인가 해놓았을 때이며 제일 행복한 순간은 아이들의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높이 울려 퍼질 때이다.

어린이들을 따뜻이 품어안아주시며 두발도 다독여주시고 그들의 귀속달도 다정히 들어주시는분이 바로 그이시이다.

국제사회는 새 세대들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김정은각하의 모습에서 조선의 창창한 미래를 보고있다.

신문 《꿈쑈볼스카야 브라우다》는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온 나라 학생들의 학부형이 되어서 책가방과 교복, 교과서와 학습장 등 학업에 필요한 모든것을 마련 해주기 위해 늘 마음쓰신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조선의 이르는 곳마다에는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충도원국제소

년단야영소와 같은 과외교양기지가 훌륭히 일떠서 자라나는 새 세대들이 자기의 재능을 마음껏 꽃피우고있다.

조선에서는 령도자와 아이들이의 혈연적유대를 보여주는 가슴 뜨거운 이야기들도 무수히 꽃피어나 세인을 감동시키고있다.

조선의 어린이들이 두팔을 벌리고 스스로 읽어서 달려가 안기는 품은 바로 김정은령도자의 품이다.

세계민주청년련맹 부위원장 칼 빠나 마두바쉬나는 지구상의 많은 나라들에서 아이들이 조부모인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고있으며 재능있는 어린이들은 돈벌이 수단으로 리용되고있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당과 정부가 아이들을 위한 궁전을 지어주고 재능의 싹을 하나하나 찾아 키워주고 있다. 정말 조선의 어린이들이 부럽다고 자기의 심정을 터놓았다.

필리핀민주독도위원회 집행위원 아르투스 아르블레타도 아이들을 보며로 여기며 후대교육을 중시하는 나라에는 언제나 밝은 미래가 있다고 하면서 조선의 현실이 이를 그대로 실증해주고있다고, 학생소년들의 행복찬 모습에서 조선의 보다 창창한 미래를 확신할수 있다고 격찬하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마음속에 이 세상 제일 귀중한 존재로 간직되어있는것이 바로 조국인민이다.

조국광 방방곡곡 인민이 있는 곳 그 어디에나 새겨지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거룩한 헌신의 자욱자욱에서 매일 매 시각 받아안는 감격적인 현실은 해외에서 사는 우리들에게도 뜨겁게 간직되어있다.

지난해 자연재해를 당한 여러 피해지역을 현지로해 하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자애로운 영상이 지금도 나의 눈앞에 어리여온다.

혹심한 피해를 당한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일대에 대한 현지지도와 황해남도의 태풍피해지역들에 대한 현지지도, 함경남도의 태풍피해지역을 찾으시어 현지에서 소집하신 당중앙위원회 정무부 확대회의, 10월 10일 이 눈앞에 다가오는데 현원이 곤란하고 시간이 촉박하다고 하여 피해를 입은 함경남북도 수 많은 인민들이 현지에서 명절을 쇠게 할수 없는 없다고 하시며 수도당원동지들에게 보내신 공개서한...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일대를 찾으시어는 미끄러운 눈두렁길도, 큰물이 지나간 흉터길도 서슴없이 밟으시며 피해상황들을 세심하게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 복구사업과 관련한 과업과 방도들을 명철하게 밝혀주시던 경애하는 그이시이다.

본사기자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일대를 찾으시어는 미끄러운 눈두렁길도, 큰물이 지나간 흉터길도 서슴없이 밟으시며 피해상황들을 세심하게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 복구사업과 관련한 과업과 방도들을 명철하게 밝혀주시던 경애하는 그이시이다.

회주의선경으로 새로 일떠세운 황해북도 금천군 강북리며 천지개벽한 김화군, 립시복구원 위험천만한 협곡길경을 달리시어 별고 협한 검덕지구피해복구현장감 함경남도의 자연재해복구건설장을 찾으신 인민의 자애로운 아버지.

가슴뜨겁게 안겨준다.

김화군피해복구현장을 찾으시어 우리 당이 구상하는 리상명명사화에 어울리는 문화주택들에서 인민들이 행복찬 생활을 되찾는다면 그처럼 기쁘고 보람스러운 투쟁이 어디에 있겠는가고 진정에 넘쳐 말씀하시며 만민에 환한신 웃음을 지으시던 그의 자애로운 영상이...

오늘 조국인민은 이인위원을 천품으로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었기에,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가시는 그의 거룩한 자욱자욱이 있기에 공화국의 존엄은 더욱 높아지고 그 어떤 재난속에서도 우리 사회주의조국의 앞날은 더욱 밝고 아름다우며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라는것을 굳게 확신하고있다.

인민을 이 세상 가장 귀중한 존재로 여기시며 자신의 모든것을 강그러 다 바쳐가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애국애민 의 헌신의 길을 따라 재중조선인 총련합회 일군으로서의 자기의 본분을 다해나갔다는것을 다시금 굳게 마음다잡힌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통일운동부장 김영희

본사기자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일대를 찾으시어는 미끄러운 눈두렁길도, 큰물이 지나간 흉터길도 서슴없이 밟으시며 피해상황들을 세심하게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 복구사업과 관련한 과업과 방도들을 명철하게 밝혀주시던 경애하는 그이시이다.

본사기자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일대를 찾으시어는 미끄러운 눈두렁길도, 큰물이 지나간 흉터길도 서슴없이 밟으시며 피해상황들을 세심하게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 복구사업과 관련한 과업과 방도들을 명철하게 밝혀주시던 경애하는 그이시이다.

왜 력사문맹국인가

들이 지도에서 독도를 가리키며 《다게시마》라고 부름하는 돌음까지 밀려놓으려 한다니 기가 막힐 정도이다.

조선반도와 아시아대륙에 대한 일본의 제정야망은 이렇게 세계적인 대대양속에서도 꿈틀대고있으며 이제는 울림픽의 고상한 체육정신마저 응용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피리나나는 과거의 최악에 대해 사회와 배상은커녕 여전히 제정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세인의 저주와 규탄을 외면하는 일본을 어떻게 정상적인 나라라고 할수 있는가.

일본이 력사문맹국, 정치난쟁이라고 손가락질당하는 리유는 명백하다.

지금은 21세기이며 사람들은 세 세기의 문명을 향해 치달고있지만 유독 일본만은 인류에게 참혹한 재앙과 불행운을 들뜨은 전쟁미치광이들의 군국주의적인 망상을 세기를 이어가며 되풀이해오려고 발광하고있으니 결국 세인들은 일본을 가리켜 력사문맹국이라고 부르지 않을수 없다.

정필

## 조국소식

각지 청년들 사회주의건설의 주요전구들로 련이어 탄원



공화국의 함경남도, 황해북도, 자강도의 청년들이 사회주의건설의 주요전구들로 련이어 탄원하고있다.

함경남도 북청군의 청년들이 룡전과수농장을 비롯한 과수농장들에 탄원하였으며 고원군, 영광군, 부전군 등의 청년들이 사회주의농촌에 삶의 뿌리를 내리었다.

함흥화학공업대학, 함흥사범대학 등의 졸업반학생들이 인민경제 주요전구들과 산골 학교, 섬마을분교로 보내줄것을 제기하였다.

황해북도안의 중등학원, 고급중학교의 700여명 졸업반학생들도 어렵고 힘든 부문으로 탄원하였다.

자강도 회천중등학교의 수십명 원아들이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건설과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절실히 필요한 통나무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킬것을 다짐하며 도안의 립업 부문으로 탄원하였다.

전국적으로 모내기성과 확대

각지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 지원자들의 투쟁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련일 모내기계획이 넘쳐 수행되고있다.

평안북도 관산군의 농업근로자들이 풍정밭탈물림을 잘하여 모내기를 제일먼저 끝냈으며 다른 시, 군들에서도 모내기의 속도와 질을 다같이 보장하였다.



본사기자

시론

세상사람들이 저속한 일본에 대해 손가락질하며 부르는 오명이 참 많다.

전법국, 정치난쟁이, 경제동물, 력사문맹국, 반인륜범죄국, 섬나라오랑캐, 21세기야만국...

다 리유가 있고 일본이 스스로 얻은 초침이다.

력사문맹국이라는 오명도 마찬가지이다.

인류력사는 과거와 현재, 미래로 끊없이 이어져있다.

과거없는 오늘이 있고 오늘을 떠난 래일이 있을수 없다.

그리고 력사는 그 누구도 부정할수 없고 세월의 이기로도 덮어버릴수 없는것이다.

하기에 한때 다른 나라나 인류에게 죄를 지은 나라도 후날에는 과거의 범죄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사죄도 표시하는것이 있다. 이것이 인류도덕이고 문명사회에서의 마땅한 행동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성과 사죄, 배상을 끈질기게 회피하면서 재침의 길로 계속 내달리고있는 나라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일본이다.

얼마전에도 일본은 도쿄 올림픽을 선전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조선민족의 신성한 령토인 독도를 저들의 땅으로 표시한 지도를 빼앗아 올려놓았으며 그에 대해 항의하자 절대로 받아들일수 없

다 리유가 있고 일본이 스스로 얻은 초침이다.

력사문맹국이라는 오명도 마찬가지이다.

인류력사는 과거와 현재, 미래로 끊없이 이어져있다.

과거없는 오늘이 있고 오늘을 떠난 래일이 있을수 없다.

그리고 력사는 그 누구도 부정할수 없고 세월의 이기로도 덮어버릴수 없는것이다.

하기에 한때 다른 나라나 인류에게 죄를 지은 나라도 후날에는 과거의 범죄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사죄도 표시하는것이 있다. 이것이 인류도덕이고 문명사회에서의 마땅한 행동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올림픽기발을 보아도 올림픽경기대회를 상징하는 현천바탕에 5대륙을 의미하는 푸

른색, 노란색, 검은색, 풀색, 붉은색의 띠를 교차적으로 새긴것인데 여기에도 5대륙의 나라와 민족들의 화합과 단결의 의미가 담겨있다고 한다.

그러나 일본이 노는 꼴을 보면 친선과 단결은 고사하고 고상한 올림픽정신이 발휘되어야 할 국제체육경기대회를 라틴족배타주의와 제침야망을 선전하는 정치적대립

과 대결의 란무장으로 만들어놓는것 같다.

올림픽봉화이어달리기로정도에도 매년 《다게시마의 날》행사가 열리는 시마네현의 《다게시마자료실》앞을 고의적으로 포함시켰다고 하니 일본의 독도장악야욕이 어느 지경까지 이르렀는가를 잘 알수 있다.

더우기 다음해부터는 력사교과서에 독도가 불법점거당하고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이러한 기준을 갖추지 못한 교과서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 할뿐 아니라 학생

과 대결의 란무장으로 만들어놓는것 같다.

올림픽봉화이어달리기로정도에도 매년 《다게시마의 날》행사가 열리는 시마네현의 《다게시마자료실》앞을 고의적으로 포함시켰다고 하니 일본의 독도장악야욕이 어느 지경까지 이르렀는가를 잘 알수 있다.

더우기 다음해부터는 력사교과서에 독도가 불법점거당하고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이러한 기준을 갖추지 못한 교과서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 할뿐 아니라 학생

과 대결의 란무장으로 만들어놓는것 같다.

# 승고한 인민사랑을 안고 흐르는 보통강

지금 공화국의 수도 평양에서는 1만세대 살림집건설과 함께 보통강강안다락식주래구건설이 온 나라의 관심속에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이르는 곳마다에서는 힘찬 노래소리, 경제선동의 북소리 울려 퍼지고 낮과 밤이 따로 없이 건설이 진행되는 속에 날이 갈수록 자기의 멋진 자태를 드러내는 건설장의 전경은 볼수록 사람들의 마음을 호탕하게 해주고있다.

보통강반에 일떠서는 새로운 주래구는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헌신하고있는 로력혁신자, 근로자들과 과학자, 교육자, 문필가들을 비롯한 각 부문의 근로자들을 위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직접 발기하여 꾸려주시는 사랑의 보금자리이다.

경애하는 그이께서 인민들에게 행복의 보금자리를 안겨주시기 위해 얼마나 마음쓰시는가 하는것은 평양시 1만세대 살림집건설착공식에 참석하시어 하신 뜻깊은 연설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그이께서는 이 연설에서 수도의 5만세대 살림집건설이 수도시민들에게 보다 안정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제공해주기 위하여 우리 당이 크게 버리고 준비해온 숙원사업이라고 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오늘을 출발점으로 하여 앞으로 당창건 80년이 되는 2025년까지 해마다 1만세대씩 5만세대의 살림집을 새로 지으면 이미 건설중에 있는 1만 6 000여세대의 살림집까지 포함하여 거의 7만세대의 살림집이 생겨나 수도시민들의 살림집문제가 철저히 해결될것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었다.

이런 거창한 사업을 펼쳐주시고도 주시는 사랑 부족하신텐 경치좋은 보통강반에 독특하고 현대적인 다락식주

래구를 따로 조성하여 로력혁신자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안겨주도록 조치를 취해주셨으니 인민을 위한 그이의 사랑과 헌신의 세계를 어찌 다 헤아릴수 있으랴.

지금 건설되는 보통강강안다락식주래구의 부지에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리용하시던 저택자리도 있다.

이런 소중한 자리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들의 새 보금자리로 정해주셨다.

정녕 그이는 이인위천, 위민헌신을 좌우명으로 삼으신 위대한 인민의 령도자이다.

돌이켜보면 현대적인 다락식주래구가 일떠서는 보통강반에는 절세위인들의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이 밤하늘의 별처럼 무수히 새겨져있다. 원래 보통강은 해방전에는 《재난의 강》, 《원한의 강》으로 불리었다. 비가 조금만 내리기도 이 일대에서는 살림집들이 물에 잠기고 수많은 리재인들이 발생하곤 하였다.

이런 《논물의 강》이 해방후 절세위인들의 사랑속에 락원의 강, 행복의 강으로 전변되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평양시민들이 당하는 불행과 고통을 단호히 끝장내시려고 새 조국건설을 위해 그토록 할 일이 많은 속에서도 친히 보통강개수공사를 발기하시고 현지에 나오시어 첫삽을 뜨시었다. 그이께서 뜨신 착공의 첫삽이 그대로 인민의 건국열의를 북돋아주어 보통강개수공사는 단 55일이 라는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끝나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후에도 보통강을 인민의 문화휴식지로 전변시켜주시려고 강반에 수많은 가로수들을 심으며 이르는 곳마다에 인민들이 즐겨 찾는 상점 및 급양봉사기지도 일떠세우도록 해주셨다.

어버이수령님의 뜻을 이어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서는 보통강을 따라 빙상관과 청류관, 창광원을 비롯한 현대적인 대중봉사기지를 일떠세우도록 하여주시었다.

주체97(2008)년 6월 어느 날 나라일에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새로 개건된 청류관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인민들에게 자그마한 불편이라도 있을세라 식사물의 겨울철실내온도에 대하여까지 일일이 보살피시었다.

이렇듯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한 사랑과 보살핌속에 보통강반에 자리잡은 청류관과 식당을 비롯한 인민봉사기지를 더 많이 일떠세워야 한다고 하시었다.

이뿐이 아니다. 주체99(2010)년 12월 보통강기슭에 자리잡은 보통강백화점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한쪽의 그림처럼 아름다운 보통강반과 조화를 이루며 건설

된 백화점은 나라없던 지난날 눈물의 강, 원한의 강으로 불리우던 보통강이 로동당시대에 와서 행복의 강, 락원의 강으로 전변되었음을 뚜렷이 증시해주는 또 하나의 자랑찬 창조물이라고,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현대적인 상점들과 식당을 비롯한 인민봉사기지를 더 많이 일떠세워야 한다고 하시었다.

이렇게 되어 보통강기슭에는 인민들의 생활을 보다 윤택하고 편리하게 해주는 보통문거리고기상점과 보통강상점, 보통강수산물상점이 연이어 일떠서게 되었다.

보통강을 행복의 강, 락원의 강으로 꾸리시려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을 이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끝없는 위민헌신의 자욱을 새겨가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사랑의 뜨거운 사연이 새겨진 보통강기슭을 더 살기 좋은 인민의 명당으로 가꾸어주시려 보통강정리사업을 몸소 인민군대가 맡아하도록 하여주시는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보통강반의 명당자리에 만수교고기상점 위치를 잡아주시어 훌륭히 완공되도록 하여주시였을뿐 아니라 만수교정양음료점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개건보수하도록 하여주시었다. 과학자들이 즐겨 찾는 보통강반의 미래상점에도 경애하는 그이의 따뜻한 손길이 어려여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2012년에 개건한 미래상점들 규모에 있어서나 내용에 있어서 보다 더 훌륭한 상업봉사기지로 전변시켜주시기 위하여 몸소 명당자리에 위치도 잡아주시고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도 다 풀어주시었다. 그러시고도 완공되었을 때에는 몸소 현지에 나오시어 미래상점과 종합봉

사기지를 운영하면 인민들이 정말 좋아할것이라고 하시면서 일군들과 봉사자들이 인민의 행복이라는 자욱을 안고 봉사활동을 잘해나가라고 간곡히 당부하시었다.

진정 절세위인들의 인민사랑의 손길속에 보통강반은 인민의 문화휴식지로 날날이 아름답게 변모되어가고있다.

그런데 오늘은 또 인민을 위하는 가슴뜨거운 사랑의 서사시가 이곳 보통강반에 또다시 새겨지게 되었으니 수도시민들을 비롯한 인민의 감격과 기쁨은 끝이 없다.

이제 머지않아 보통강반에는 현대적인 다락식주래구가 훌륭히 완공되어 인민의 웃음소리가 더 높이 울리게 될 것이다.

본사기자 주 일 봉



## 재일동포들을 위해서는 아까울것이 없다시며

제일동포들은 당국노의 원한과 설움이 삼천리강토를 무겁게 짓누르던 피눈물의 그 세월 얼음판에 떨어진 씨앗과도 같이 차디찬 이국의 대지에 뿌려져 인간이하의 천대와 민족적멸시를 강요당한 사람들과 그 후손들이다.

이 력사의 수난자들에게 참다운 삶의 길을 열어주시어 어버이수령님의 그 사랑으로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서는 재일동포들을 따듯이 품에 안아 길잡이를 손잡아 이끌어 주시었다.

주체61(1972)년 7월 어느날에 있는 일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토록 세심한 은정에 의하여 제일동포들의 조국방문사업은 대규모적으로 활발히 벌어지게 되었다.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70돐을 맞으며 온 나라, 전세계가 뜨거운 흥조의 열기로 끓어오르던 주체71(1982)년 4월 재일동포사회는 크나큰 격정에 휩싸이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유치반어린이로부터 초급학교 학생에 이르는 재일동포자녀들모두에게 귀한 보약제인 인삼을 한사람당 세뿌리씩이나 보내주시었다.

수만뿌리에 달하는 인삼을 받아안고 온 동포사회가 감격의 도가니로 끓어번지었다. 절세위인의 탄생일을 맞으며 자라나는 기울인 지성이 모 자란것만 같아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수 없는데 오히려 이토록 귀한 보약재를 아이들에게 안겨주시었으니 그 사랑에 무슨 말로 감사의 인사를 올릴 수 있으랴.

당시 조국의 어린이들도 이 인삼을 선물로 받아안았다. 한 어린이당 한뿌리씩이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동포들의 충격은 더욱 컸다. 멀리 있는 자식들에게 더 마음쓰시는 자애로운 어버이의 현연의 정을 절감하며 누구나 웃음을 질기었다.

어찌 이뿐이랴.

일본에서 한신대지진이 일어났을 때에는 재일동포들이 당한 불상사를 두고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시면서 설사 우리가 죽을 먹고 굶는 한이 있더라도 위문금을 많이 보내주어야 한다고 하시며 불행한 겪는 재일동포사회에 사랑의 생명수를 부어주시었다.

그때 지역의 아들딸들은 우리가 공장을 한두개 못 짓는 한이 있더라도 재일동포들에게 자녀들을 공부시킬 돈을 보내주어야 한다고 하시던 어버이수령님의 그 사랑 그대로인 위대한 장군님의 열화같은 동포애에 북돋여 이렇게 되로하였다.

어머니조국의 파사로운 품이 있어 우리 재일동포들에게 재난은 있을지언정 불행은 있을수 없으며 위대한 장군님을 친어버이로 모시고 은혜로운 조국의 품속에서 한식술로 사는 우리 재일동포들처럼 행복한 해외교포들은 이 세상에 없다고.

온 나라가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하고있던 그 엄혹한 시기에도 총련에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는 문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워주신 그대로와 전통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기간을 변동시키거나 그 량을 줄이지 말고 수령님께서 계시는 때와 똑같이 보내주어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간곡한 교시는 오늘날도 재일동포들의 심장을 세차게 울려주고있다.

진정 위대한 장군님의 이렇듯 크나큰 사랑과 은정이 있었기에 재일동포들은 이역의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신심과 랑만에 넘쳐 조국의 부강번영과 재일조선인운동의 강화발전에 자신들의 깨끗한 마음을 바쳐올수 있었다.

본사기자 김 철 진

어떤 소식이 좋은 소식인가, 기쁨과 만족을 주는 제일 좋은 소식은 무엇인가 하는것은 사람마다 각이씩이다.

아마도 자손을 바라던 사람들에게는 유독자녀를 보았다는 소식이, 생명이 경각에 탈하였던 환자들에 드디어 소생을 눈앞에 두었다는 소식이 제일 좋은 소식일 것이다.

하다면 자애로운 인민의 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기다리시는 제일 좋은 소식은 무엇인가.

주체101(2012)년 4월 어느날이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품치수려한 보통강기슭에 현대적이면서도 산뜻하게 일떠선 만수교고기상점을 찾으신 것이다.

비내리는 곳은날도 마다 하지 않고 몸소 삼점에 나오신 그이께서는 건축미학적으로 흠잡을데 없이 시공된 공간에는 상점내부와 인민들의 편의를 최대한으로 보장할수 있게 진렬된 상품들과 시설물들을 하나하나 주체적으로 돌아보시었다.

3층로대에 오르신 경애하는

어떤 소식이 좋은 소식인가, 기쁨과 만족을 주는 제일 좋은 소식은 무엇인가 하는것은 사람마다 각이씩이다.

아마도 자손을 바라던 사람들에게는 유독자녀를 보았다는 소식이, 생명이 경각에 탈하였던 환자들에 드디어 소생을 눈앞에 두었다는 소식이 제일 좋은 소식일 것이다.

하다면 자애로운 인민의 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기다리시는 제일 좋은 소식은 무엇인가.

주체101(2012)년 4월 어느날이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품치수려한 보통강기슭에 현대적이면서도 산뜻하게 일떠선 만수교고기상점을 찾으신 것이다.

비내리는 곳은날도 마다 하지 않고 몸소 삼점에 나오신 그이께서는 건축미학적으로 흠잡을데 없이 시공된 공간에는 상점내부와 인민들의 편의를 최대한으로 보장할수 있게 진렬된 상품들과 시설물들을 하나하나 주체적으로 돌아보시었다.

3층로대에 오르신 경애하는

어떤 소식이 좋은 소식인가, 기쁨과 만족을 주는 제일 좋은 소식은 무엇인가 하는것은 사람마다 각이씩이다.

아마도 자손을 바라던 사람들에게는 유독자녀를 보았다는 소식이, 생명이 경각에 탈하였던 환자들에 드디어 소생을 눈앞에 두었다는 소식이 제일 좋은 소식일 것이다.

하다면 자애로운 인민의 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기다리시는 제일 좋은 소식은 무엇인가.

주체101(2012)년 4월 어느날이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품치수려한 보통강기슭에 현대적이면서도 산뜻하게 일떠선 만수교고기상점을 찾으신 것이다.

비내리는 곳은날도 마다 하지 않고 몸소 삼점에 나오신 그이께서는 건축미학적으로 흠잡을데 없이 시공된 공간에는 상점내부와 인민들의 편의를 최대한으로 보장할수 있게 진렬된 상품들과 시설물들을 하나하나 주체적으로 돌아보시었다.

3층로대에 오르신 경애하는

어떤 소식이 좋은 소식인가, 기쁨과 만족을 주는 제일 좋은 소식은 무엇인가 하는것은 사람마다 각이씩이다.

아마도 자손을 바라던 사람들에게는 유독자녀를 보았다는 소식이, 생명이 경각에 탈하였던 환자들에 드디어 소생을 눈앞에 두었다는 소식이 제일 좋은 소식일 것이다.

하다면 자애로운 인민의 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기다리시는 제일 좋은 소식은 무엇인가.

주체101(2012)년 4월 어느날이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품치수려한 보통강기슭에 현대적이면서도 산뜻하게 일떠선 만수교고기상점을 찾으신 것이다.

비내리는 곳은날도 마다 하지 않고 몸소 삼점에 나오신 그이께서는 건축미학적으로 흠잡을데 없이 시공된 공간에는 상점내부와 인민들의 편의를 최대한으로 보장할수 있게 진렬된 상품들과 시설물들을 하나하나 주체적으로 돌아보시었다.

3층로대에 오르신 경애하는

어떤 소식이 좋은 소식인가, 기쁨과 만족을 주는 제일 좋은 소식은 무엇인가 하는것은 사람마다 각이씩이다.

아마도 자손을 바라던 사람들에게는 유독자녀를 보았다는 소식이, 생명이 경각에 탈하였던 환자들에 드디어 소생을 눈앞에 두었다는 소식이 제일 좋은 소식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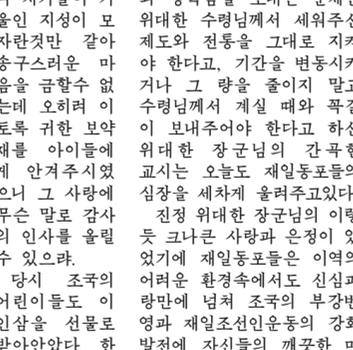
하다면 자애로운 인민의 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기다리시는 제일 좋은 소식은 무엇인가.

주체101(2012)년 4월 어느날이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품치수려한 보통강기슭에 현대적이면서도 산뜻하게 일떠선 만수교고기상점을 찾으신 것이다.

비내리는 곳은날도 마다 하지 않고 몸소 삼점에 나오신 그이께서는 건축미학적으로 흠잡을데 없이 시공된 공간에는 상점내부와 인민들의 편의를 최대한으로 보장할수 있게 진렬된 상품들과 시설물들을 하나하나 주체적으로 돌아보시었다.

3층로대에 오르신 경애하는



## 위민헌신의 자욱을 수놓아가시며

인제인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김정순평양제사공장의 이불생산현장을 돌아보실 때였다.

현대적인 설비마다에서 여러가지 문양을 수놓은 이불들이 필필이 흘러나오는 모습을 지켜보는 그이께서는 모시와 면을 넘쳐 넘쳐 나오던 그이께서는 못내 만족해 하시면서 치너총각들이 시집감자갈 때 그들에게 이런 멋진 이불들을 안겨주

어떤 소식이 좋은 소식인가, 기쁨과 만족을 주는 제일 좋은 소식은 무엇인가 하는것은 사람마다 각이씩이다.

아마도 자손을 바라던 사람들에게는 유독자녀를 보았다는 소식이, 생명이 경각에 탈하였던 환자들에 드디어 소생을 눈앞에 두었다는 소식이 제일 좋은 소식일 것이다.

하다면 자애로운 인민의 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기다리시는 제일 좋은 소식은 무엇인가.

주체101(2012)년 4월 어느날이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품치수려한 보통강기슭에 현대적이면서도 산뜻하게 일떠선 만수교고기상점을 찾으신 것이다.

비내리는 곳은날도 마다 하지 않고 몸소 삼점에 나오신 그이께서는 건축미학적으로 흠잡을데 없이 시공된 공간에는 상점내부와 인민들의 편의를 최대한으로 보장할수 있게 진렬된 상품들과 시설물들을 하나하나 주체적으로 돌아보시었다.

3층로대에 오르신 경애하는

어떤 소식이 좋은 소식인가, 기쁨과 만족을 주는 제일 좋은 소식은 무엇인가 하는것은 사람마다 각이씩이다.

아마도 자손을 바라던 사람들에게는 유독자녀를 보았다는 소식이, 생명이 경각에 탈하였던 환자들에 드디어 소생을 눈앞에 두었다는 소식이 제일 좋은 소식일 것이다.

하다면 자애로운 인민의 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기다리시는 제일 좋은 소식은 무엇인가.

주체101(2012)년 4월 어느날이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품치수려한 보통강기슭에 현대적이면서도 산뜻하게 일떠선 만수교고기상점을 찾으신 것이다.

비내리는 곳은날도 마다 하지 않고 몸소 삼점에 나오신 그이께서는 건축미학적으로 흠잡을데 없이 시공된 공간에는 상점내부와 인민들의 편의를 최대한으로 보장할수 있게 진렬된 상품들과 시설물들을 하나하나 주체적으로 돌아보시었다.

3층로대에 오르신 경애하는

어떤 소식이 좋은 소식인가, 기쁨과 만족을 주는 제일 좋은 소식은 무엇인가 하는것은 사람마다 각이씩이다.

아마도 자손을 바라던 사람들에게는 유독자녀를 보았다는 소식이, 생명이 경각에 탈하였던 환자들에 드디어 소생을 눈앞에 두었다는 소식이 제일 좋은 소식일 것이다.

하다면 자애로운 인민의 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기다리시는 제일 좋은 소식은 무엇인가.

주체101(2012)년 4월 어느날이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품치수려한 보통강기슭에 현대적이면서도 산뜻하게 일떠선 만수교고기상점을 찾으신 것이다.

비내리는 곳은날도 마다 하지 않고 몸소 삼점에 나오신 그이께서는 건축미학적으로 흠잡을데 없이 시공된 공간에는 상점내부와 인민들의 편의를 최대한으로 보장할수 있게 진렬된 상품들과 시설물들을 하나하나 주체적으로 돌아보시었다.

3층로대에 오르신 경애하는

어떤 소식이 좋은 소식인가, 기쁨과 만족을 주는 제일 좋은 소식은 무엇인가 하는것은 사람마다 각이씩이다.

아마도 자손을 바라던 사람들에게는 유독자녀를 보았다는 소식이, 생명이 경각에 탈하였던 환자들에 드디어 소생을 눈앞에 두었다는 소식이 제일 좋은 소식일 것이다.

하다면 자애로운 인민의 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기다리시는 제일 좋은 소식은 무엇인가.

주체101(2012)년 4월 어느날이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품치수려한 보통강기슭에 현대적이면서도 산뜻하게 일떠선 만수교고기상점을 찾으신 것이다.

비내리는 곳은날도 마다 하지 않고 몸소 삼점에 나오신 그이께서는 건축미학적으로 흠잡을데 없이 시공된 공간에는 상점내부와 인민들의 편의를 최대한으로 보장할수 있게 진렬된 상품들과 시설물들을 하나하나 주체적으로 돌아보시었다.

3층로대에 오르신 경애하는

어떤 소식이 좋은 소식인가, 기쁨과 만족을 주는 제일 좋은 소식은 무엇인가 하는것은 사람마다 각이씩이다.

아마도 자손을 바라던 사람들에게는 유독자녀를 보았다는 소식이, 생명이 경각에 탈하였던 환자들에 드디어 소생을 눈앞에 두었다는 소식이 제일 좋은 소식일 것이다.

하다면 자애로운 인민의 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기다리시는 제일 좋은 소식은 무엇인가.

주체101(2012)년 4월 어느날이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품치수려한 보통강기슭에 현대적이면서도 산뜻하게 일떠선 만수교고기상점을 찾으신 것이다.

비내리는 곳은날도 마다 하지 않고 몸소 삼점에 나오신 그이께서는 건축미학적으로 흠잡을데 없이 시공된 공간에는 상점내부와 인민들의 편의를 최대한으로 보장할수 있게 진렬된 상품들과 시설물들을 하나하나 주체적으로 돌아보시었다.

3층로대에 오르신 경애하는

어떤 소식이 좋은 소식인가, 기쁨과 만족을 주는 제일 좋은 소식은 무엇인가 하는것은 사람마다 각이씩이다.

아마도 자손을 바라던 사람들에게는 유독자녀를 보았다는 소식이, 생명이 경각에 탈하였던 환자들에 드디어 소생을 눈앞에 두었다는 소식이 제일 좋은 소식일 것이다.

하다면 자애로운 인민의 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기다리시는 제일 좋은 소식은 무엇인가.

주체101(2012)년 4월 어느날이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품치수려한 보통강기슭에 현대적이면서도 산뜻하게 일떠선 만수교고기상점을 찾으신 것이다.

비내리는 곳은날도 마다 하지 않고 몸소 삼점에 나오신 그이께서는 건축미학적으로 흠잡을데 없이 시공된 공간에는 상점내부와 인민들의 편의를 최대한으로 보장할수 있게 진렬된 상품들과 시설물들을 하나하나 주체적으로 돌아보시었다.

3층로대에 오르신 경애하는

어떤 소식이 좋은 소식인가, 기쁨과 만족을 주는 제일 좋은 소식은 무엇인가 하는것은 사람마다 각이씩이다.

아마도 자손을 바라던 사람들에게는 유독자녀를 보았다는 소식이, 생명이 경각에 탈하였던 환자들에 드디어 소생을 눈앞에 두었다는 소식이 제일 좋은 소식일 것이다.

하다면 자애로운 인민의 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기다리시는 제일 좋은 소식은 무엇인가.

주체101(2012)년 4월 어느날이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품치수려한 보통강기슭에 현대적이면서도 산뜻하게 일떠선 만수교고기상점을 찾으신 것이다.

비내리는 곳은날도 마다 하지 않고 몸소 삼점에 나오신 그이께서는 건축미학적으로 흠잡을데 없이 시공된 공간에는 상점내부와 인민들의 편의를 최대한으로 보장할수 있게 진렬된 상품들과 시설물들을 하나하나 주체적으로 돌아보시었다.

3층로대에 오르신 경애하는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역사적로정

# 전후 자주적평화통일의 촉진을 위하여

전후의 전반적정치정세는 비록 정전은 되었어도 외세와 그 앞잡이들의 로골화되는 침략전쟁정동으로 말미암아 의연히 긴장하였다.

이러한 현실은 공화국정부로 하여금 전쟁의 후과를 가시며 내외호전세력의 새 전쟁도발책동에 대비하여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추진할 새로운 대책을 강구할것을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전후 공화국이 제시한 조국통일방정에서 기본은 나라와 민족의 통일은 그 어떤 외세의 간섭이 없이 조선인민 자신이 주인이 되어 협상의 방법으로 실현하는것이였다.

즉 무력협상에 의거하지 않고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통일문제를 해결하는것이였다.

당시의 정세를 깊이 통찰한 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8.15해방 10돐을 맞으며 진행된 경주대회에서 하신 역사적인 보고에서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위하여 공화국정부가 견지하고있는 원칙적립장을 천명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보고에서 조선의 통일문제는 조선사람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서는 조선에서 모든 외국군대가 철거하고 북남조선인민들이 한자리에 모여앉아

조선문제를 토의하며 자기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민주주의적동등정부를 수립하여야 한다고 밝혀주시였다.

또한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공화국정부가 전향적태도에 대한 문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와 남조선 《국회》 사이의 협상을 이룩하며 인민들의 자유로운 대의를 보장할데 대한 문제, 조국통일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북남조선당국의 대표자회의를 소집할데 대한 문제 등을 밝히고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방도까지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주체45(1956)년 4월 23일에 하신 《조선로동당 제3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에서 자주적평화통일방침을 재천명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북과 남의 모든 애국적정당, 사회단체, 개별적인 사람들의 련합을 실현하며 북과 남 사이에 정치, 경제, 문화적관계와 인사교류 등 통일의 교환을 실현하며 이를 위하여 북남조선 정당, 사회단체정치외교의 또는 개별적인 정당, 사회단체, 애국적인사들과의 회담을 진행하며 실지 대책을 취할수 있는 상설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등 공화국

정부의 조국통일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3차대회에서는 이러한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조국통일방침에 기초하여 평화통일을 다그치기 위한 조국통일 대책을 천명한 력사적인 선언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위하여》를 발표하였다.

선언에서는 조선문제의 종국적해결은 조선인민자체의 민주주의적의사에 기초하여 실현하여야 하며 조선의 통일 정부도 전체 조선인민의 총선거에 의하여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선언에서는 정권, 신앙의 차이를 묻지 않고 북남조선의 각 정당, 사회단체들이 서로 협조하며 공동정신을 발휘할것을 절절히 호소하면서 비록 과거에 조국과 인민앞에 죄를 범하였다 하더라도 자기의 과오를 뉘우치고 진정으로 조국과 민족의 통일을 평화적으로 달성하려 한다면 환영하고 협조할것이며 통일이 실현된 후 공로와 재능에 따라 련합정부에도 참가시켜야 할것이라는 것을 천명하였다.

이 선언은 공화국정부가 일관하게 견지해온 자주적평화통일방침의 구현이였으며 당시의 조성된 정세에서 조국통일의 새 국면을 열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안이였다. 하

기에 선언은 북과 남의 인민들과 해외동포들, 전세계평화에 호인민들속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공화국정부는 조선로동당 제3차대회선언에서 제시한 조국통일방침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1956년 11월중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2차회의에서 외국군대의 철거, 북남군비축소회담의 소집과 정전의 완전한 평화에로의 전환을 위하여 북과 남이 공동으로 노력할것 등을 남조선의 《민의원》과 사회계에 호소한 최고인민회의서한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내외분렬주의세력은 공화국의 모든 정당한 제의들을 묵살하였을뿐 아니라 조선경제대표를 더욱 격화시키는데로 나갔다.

이러한 속에서 조국통일 정부는 인내성을 가지고 1959년 5월 22일 성명을 발표하여 북과 남사이의 인공적인 장벽을 헐어버리고 모든 사람들의 자유로운 대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판문점, 철원 및 쌍방이 합의한 기타 지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설정할것을 남조선당국에 제의하였다.

1959년 10월 26일부터 28일사이에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6차회의에서는

## 남의 본을 따서는 안된다

본사기자 황금숙

본사기자 최광혁

본사기자 박철남

## 통일을 불러

통일! 장장 70여년세월 온 겨레가 이 말을 얼마나 많이 부르고 불러왔는가.

## 진정한 애국의 길은 어디에 (1)

오늘도 겨레의 기억속에 남아있는 통일인사들중에는 우사 김규식선생도 있다.

김규식선생은 1880년 12월 28일 경상북도 울진군에서 태어났다.

그가 태어날 당시 일제는 1875년 8월 조선침략의 구실을 마련하기 위한 강도적인 《운양》호사건을 도발하고 조선봉건정부와 불평등적이며 애국적인 조약을 강압 체결하는데 달라붙었다.

무능한 봉건통치배들은 일제의 강압을 견디지 못하고 1876년 2월 《조수호조규》를 체결하였으며 부산과 함께 2개 항을 개항하였다. 이로 하여 전통적인 수공업은 점차 해체되어갔고 농산품들은 일본에서 수입된 공업생산물에 비해 훨씬 값싸게 일본에 수출되어나갔다.

망조가 드는 나라의 지붕 밑에서는 충성이 육보는 법이다.

이후러 동래부 판리로 대외관계를 맡아보있던 그의 아버지 김지성은 일본과의 무역에서 불균등교환으로 나라가 피해를 당하고 일본상인들의 횡포가 날이 심해가서 현실을 목격하면서 그 부당함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상소문을 임금에게 올렸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이로 말미암아 결국 정배살이를 당하고 몇년후에는 세상을 떠났다.

실상가상으로 그가 6살되던 해에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그의 집안은 급속히 몰락해 갔으며 그는 일찍 고아가 되었다.

어린 그는 미국선교사 언더우드의 이른바 《자선》으로 교아원에서 교육을 받았다.

그후 1897년에 조국을 떠나 미국에서 류학을 하고 거기에서 《박사》학위까지 얻었다.

그 기간 그는 저도 모르게 그리스도교신앙과 미국에 대한 환상에 푹 빠져들었다.

그것이 후날 그가 벌인 독립운동의 길에서 전진이 아닌 후진을 가져오고 겨레의 통일을 위한 길에서는 애국이 아닌 오욕의 흔적을 남기게 한 근본요인으로 되었다.

1904년 그가 류학을 마치고 귀국했을 때 눈앞에 펼쳐

너무도 귀에 익은 이 부름 절절한 노래에 담겨, 격조높은 시어에 담겨 가슴으로 꿰뚫었다.

통일의 길에서 이름을 남긴 수많은 유명무명의 인사들은 또 얼마나 많았는가.

그들은 지금 우리곁에 없다. 하지만 그들의 넋은 이 땅에 남아 겨레모두를 통일로 부르고있다.



4월 남북협력회의에 참가하기 위하여 군사분계선을 넘어선 김규식선생(앞줄 오른쪽에서 첫번째)과 일행

었다. 바닥없는 심연처럼 앞이 캄캄해졌다.

선생은 중국의 상해와 천진, 사천성의 여러 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조선인류학생들에게 민족독립정신을 심어주는 한편 독립운동자금모집에도 관여하였다.

명명생활기전 선생은 《조선민족혁명당》 명예주석, 《상해민정정부》의 외부부장, 《중경민정정부》 부주석도 하면서 제때에는 독립애국의 제단에 자기의 심신을 깎그리 바쳤다.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해방이 왔다. 30여년간의 라향살이를 끝내고 조국으로 귀국했지만 선생은 그때까지도 외세에 대한 환상을 버리지 못했으며 본의아니게 외세가 두드러지는 반공, 반통일장단에 어울려 돌아갔다.

모스크바3국상회의이후 외세가 회의결정에서 표현한 《후견》을 《신탁통치》로 외곡하며 남조선의 사대세력을 《반탁》으로 부추기자 그 장단에 올라나 《반탁》운동에도 열을 올렸으며 외세가 조작한 남조선민주주의 원 부의장, 남조선과도정부의 원 의장도 하면서 범죄적인 《단독정부》 실현의 폭두각 시도로도 하였다.

그는 늦게나마 미국의 본

일대전 서울에서 《남북정상회담의 국회비준동의와 한반도평화재조기》이라는 제목으로 정책토론회가 진행되었다고 한다.

《민족화해협력국민협의회》를 비롯한 15개 시민사회단체들과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동주최한 정책토론회에 대하여 남조선언론들이 보도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 발언자들은 남북합의서들이 2020년 9월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다수의석을 차지하고있는 여당은 소란스러운 내정에만 정신이 팔려 이 중대한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루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합의서들의 《국회》비준이 이루어지지 않은 책임이

현 집권세력에게 있다고 비판하였다.

특히 당국이 북과 단계적군축을 합의하고도 지난 4년간 사상최대규모의 군비증강에 나섰고 이를 견제했어야 할 여당이 오로지 수동적 역할만 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토론자들은 《답답한 분노라 표현해야 할 정도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지금》이 순간도 정부의 한반도정책은 실패하고있다.》며 불만

을 표시하였다.

토론회에서는 북남합의서들의 《국회》비준을 악랄하게 가로막아온 보수패당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고 한다.

남조선 각계층은 《국회》를 비롯한 15개 시민사회단체들과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동주최한 정책토론회에 대하여 남조선언론들이 보도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 발언자들은 남북합의서들이 2020년 9월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다수의석을 차지하고있는 여당은 소란스러운 내정에만 정신이 팔려 이 중대한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루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합의서들의 《국회》비준이 이루어지지 않은 책임이

## 하필철폐법 개정국민의역가

본사기자 박철남

본사기자 박철남

## 정책토론회에서 울려나온 목소리

거수기역할을 한데 대하여 강하게 비난하였다고 한다.

토론자들은 《답답한 분노라 표현해야 할 정도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지금》이 순간도 정부의 한반도정책은 실패하고있다.》며 불만을 표시하였다.

토론회에서는 북남합의서들의 《국회》비준을 악랄하게 가로막아온 보수패당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고 한다.

남조선 각계층은 《국회》를 비롯한 15개 시민사회단체들과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동주최한 정책토론회에 대하여 남조선언론들이 보도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 발언자들은 남북합의서들이 2020년 9월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다수의석을 차지하고있는 여당은 소란스러운 내정에만 정신이 팔려 이 중대한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루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합의서들의 《국회》비준이 이루어지지 않은 책임이

하기에 이번 토론회에서 발언자들은 2018년 9월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비준동의안》이 제출되었으나 당시 보수패당의 책동으로 실현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남북문제에 여야가 따로일수 없다. 《국회》비준은 초당적협력과 국민적합의, 지속가능한 대북정책을 위해 필요한 절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보수야당의 행태는 매우 유감스러울것》이라고 울분을 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론들은 이번 정책토론회가 《국민의힘》에 대한 규탄의 마당으로 되었다고 전하였다.

본사기자

을 찬양해도 처벌할수 없게 된다.》고 하면서 마치 무슨 큰일이나 난것처럼 여론을 오도하고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 보수단체가 절세위원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의 판매, 배로금지 가져본소송을 기각한 판사들을 검찰에 고발한 이어 경찰이 출판사와 출판사대표의 집을 압수수색하였다 한다.

현실은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패당이 《보안법》철폐를 가로막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음을 보여주고있다.

반통일파조약법을 계속 불붙이고있었다는 것은 거짓통치를 되살리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패당은 현 《정권》이 《보안법》철폐를 시도하였던 이전 《정권》과 다를바 없었다. 《현 국회개정안대로 찬양, 고무죄조항만 폐지해도 교실에서 교사가 북



# 침략적인 외세의 《돌격대》가 되어

최근 남조선군부호전세력들이 외세와 야합한 군사적도발 책동에 더욱 광분하고있다. 이달 10일부터 25일까지 미국의 알래스카에서 진행되는 다국적연합군훈련인 《레드 플래그》에 참가하려고 하는것도 그 하나의 실례이다. 남조선군부호전세력은 이번 훈련에 여러대의 전투기들과 수백명의 병력을 참가시켰다고 한다. 《레드 플래그》훈련은 미국이 동맹국들과의 공동훈련 작전능력을 숙달할 목적으로 1975년부터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세계최대규모의 연합군 훈련으로서 전투기와 수송기분야로 나누어 진행되며 기본은 반항공방공을 갖춘 《적》 군사시설 및 지휘시설을 공격, 공대공미사일 등으로 공격하는 작전방안을 실전사격을 통해 숙달하는 훈련이다. 남조선도 2013년부터 여기에 참가하면서 전투기들을 파견하여 공화국의 주요군사시설물과 기지 등 가상목표에

대한 정밀타격훈련을 실시해 왔다. 보나바와 같이 《레드 플래그》훈련은 우리 공화국과 그 주변나라들을 겨누고 진행되는 도발적이며 침략적인 전쟁연습이다. 문제는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미7공군사령부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남조선공군과 일본항공 《자위대》가 이번 훈련에 참가한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비행전술과 기량, 연합작전절차 등의 연습을 통해 호상운용성을 향상하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으로 말하면 우리 민족에게 해아릴수 없는 불행과 재난을 들먹인 범죄국가이며 오늘 이 시각에도 과거의 침략범죄에 대해 털끝만 한 반성이나 사죄도 없이 침략동태만 미처날뛰는 위험한 침략세력이다. 독도를 제정이라고 우기고 저들이 저지른 조선인강제징용범죄, 일본군성노예문제 등

을 한사코 부인하면서 우리 민족의 분노를 더욱 자아내게 하고있는것은 잘 알려져있다. 최근에는 도쿄올림픽경기대회와 관련한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영토로 표기한 지도를 빼 것이 게재하여 철회되고 침략적인 사무라이들의 본성을 여실히 드러내었다. 이런 민족의 천년속적들과 일을 맞추고 동족을 겨냥하여 공동군사훈련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극히 용납 못함 반민족적범죄행위가 아닐수 없다. 한편 남조선호전세력들은 얼마전 경상북도 상주에 있는 《싸드》기지에 대한 문자 반입을 또다시 강행하였으며 그 회수는 올해에 들어와서 만도 수차례나 된다고 한다. 수많은 경찰들을 동원하여 《싸드》반대시위를 벌이는 현지주민들과 시민단체성원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하고 강제해산시키면서까지 물자반입에 열을 올리는 남조선호전세력들의 행위는 남조선을 미국의 침략적인 군사

기지, 전초기지로 더욱 전략시키는 친미추종행위이며 《싸드》를 끌어들이는 박근혜역의 전철을 밟는 반민족적인 범죄행위라고 해야 할 것이다. 현실은 남조선호전세력이 상진의 대조선침략정책과 인디아태평양전략수행의 《돌격대》, 하수인이 되어 조선반도와 지역,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적인 높음에 매달리고있음을 보여주고있다. 구름이 짙으면 비가 오기 마련인것처럼 조선반도의 안팎에서 무분별하게 감행되는 전쟁연습이 어떤 불길로 번져질지 누구도 예측할수 없다. 외세가 깔아놓은 전쟁명석우에서 불장난을 벌리면서 조선반도와 지역의 긴장을 현저수준으로 남조선호전세력들의 망동은 온 겨레의 규탄배격을 면치 못할것이다. 본사기자 김혜성

《산업재해는 인재이다.》 이것은 인간의 생명안보보다 돈과 기업의 이익이 우선시되는 남조선사회에서 그럴새없이 일어나는 산업재해에 대한 진단이다. 지난 5월에만도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는 선박타공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수심m아래로 떨어져죽고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한 노동자가 기계에 몸이 끼워 사망하였으며 어느 한 세멘트공장에서는 운전공이 기계에서 추락하여 비명에 갔다. 앞서 4월에는 학비를 벌기 위해 평택에서 과외로동을 하던 대학생이 300kg짜리 철판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남조선고용노동부가 집계한 산업재해발생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수는 무려 2 060여명에 달한다고 한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비정규직청년노동자들의 비참한 처지이다. 앞에서 지적된 과외로동을 하다 목숨을 잃은 피해자도 20대의 청년이다. 2016년 10월 방송계의 열악한 환경과 비정규직문제 등을 고발하고 자살한 리

승준》으로 되어버렸다. 《우리 사회에는 지금도 캄캄한 안전사각지대에서 불안에 맞서싸우는 제2, 제3의 김용균이 있다. 그들에게 위협의 맨 끝자리로 밀려나버린 자신들의 처지를 돌아볼 여유조차 없다. 그저 살아서

남조선의 어느 한 언론에 실린 《비정규직노동자에게 《세상은 고행》》이라는 기사에는 이렇게 쓰여져있다. 《기업들은 이익과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노동자를 짧게 자주 사용하고 버리기 쉽도록 만들어가고있다. 비정규직이 넘쳐나고 이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로 노동자들의 심음이 넘쳐나는 사회로는 더이상 좋은 사회를 만들수 없다. 따뜻한 마음, 아름다운 행동이 넘쳐나 노동자들이 웃으며 일할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노동자들이 웃으며 일할수 있는 세상. 인간의 생명유에 돈을 올려놓고 돈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이 서슴지 않는 자본주의적가치관과 생활관으로 오염되어 된 남조선에서 노동자들이 웃으며 일할수 있는 세상이 과연 언제면 찾아오겠는지. 본사기자 류현철

## 안전의 사각지대에서 헤매는 남조선의 노동자들

한빛, 2018년 12월 충청남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도중에 숨진 비정규직노동자 김용균, 2016년 5월 서울의 지하철도에서 홀로 일하다 철차에 치여 숨진 청년, 그들은 모두 10대, 20대의 비정규직노동자들이었다. 취업은 하늘의 별따기이고 실업은 순간인 남조선에서 청년들, 특히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청년들의 삶은 《내 꿈은 정규직》에서 《내 꿈은

숨쉬고있는 하루하루가 천만 다행일수 있다.》 이것은 안전의 사각지대에서 헤매는 남조선노동자들의 비참한 처지를 토로한것이다. 산업재해는 자본주의의 구조적취약성과 노동자억압체제로부터 오는 필연적인 산물이며 열악한 노동환경개선에 대하여 말로만 채우고 개발들의 눈치보기에 급급한 남조선정권이 빚어낸 참혹한 인재이다.

본사기자 류현철

# 전라도민심을 나꾸어채려는 잔꾀

남조선정계에서 전라도지역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있다. 광주민병기가 일어난 날을 계기로 여야당이 저저마다 전라도지역을 찾아 《민주화정신 계승》을 운운했다가 하면 고추냉이와 신채생에대해 언급하며 《공약》들을 내놓고 추파를 던졌다고 한다. 다음기 권력을 넘겨다보는 인물들도 경쟁적으로 전라도지역을 찾아가 정책연구기관들을 내고 정책토론회를 진행하는가 하면 자기들을 지지하는 사조직들이 지역으로 확대하는 불음도 벌려 놓고있다.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여당은 자기들의 인기가 떨어질 전라도지역에서 민심으로 부터 더 배척당하지 않기 위해, 보수야당은 저들을 배척했던 전라도민심을 끌어당겨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이런 불음을 벌리고있다고 평가하였다. 가관은 전라도지역을 쓴외 보듯 하던 《국민의힘》이 당규약을 개정하여 당속속 비례대표 《국회》의원 25%를 전라도출신으로 선출하겠다는 등의 보라빛 《공약》을 내걸며 이 지역에 발을 붙여보려 하고있는것이다. 알려진것처럼 보수세력에 대한 전라도지역민심은 랭크하다. 지난 시기 《유신》독재자는 《지역차별화정책》, 《지

역연중정책》을 실시하면서 《전라도출신이 집권하면 경상도가 망한다.》는 교활한 지역간술책에 매달려 전라도는 배척하고 경상도출신들만을 끼고 돌아쳤다. 이런것으로 하여 경상도지역에서는 보수에 대한 환상이 조성되었으며 《보수의 정치적터전》은 경상도, 진보의 지지기반은 전라도》라는 동식이 생겨나게 되었다. 더우기 광주민병기자들이 대한 대중적인 학살만행으로 하여 보수세력에 대한 전라도인민들의 원성은 하늘에 닿아있으며 그것은 오늘까지 지속되어왔다. 《유신》독재와 군부독재세력의 후예들까지 광주민병기를 《독동》, 회생자유가족들을 《총복화파가 만든 피물》들이라고 모욕한 보수세력이 전라도민심으로 부터 배척받는것은 응당할것이다. 얼마전까지도 《북독수부대 광주침투설》을 날조하는 등 광주민병기를 모욕하여 전라도지역 주민들에게 지을수 없는 상처를 남긴 반역당이 이 지역에 기신기나라나 민심을 희유하려고 갖은 연극을 꾸며내고있으니 낮가죽 두꺼운 자들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임의로는 《반성》과 《사과》를 떠들어도 그들의 속에는 아직도 비수가 감추어

져있다. 여우가 양의 울음소리를 낸다고 하여 양이 뿔수는 없는것이다. 하기에 전라도지역의 각계층 인민들은 《국민의힘》의 기반적인 술책을 폭로하며 반역당을 반대하는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고있다. 얼마전 광주전남대학생보련함을 비롯하여 많은 지역에서 모인 대학생들이 광주에서 전당대회를 위한 합동연설회를 진행하려고 진입하는 《국민의힘》의 차방을 막아내면서 《5.18광주학살의 후예인 《국민의힘》은 광주에 출수 없다.》고 도로하며 항거해나선것만 보아도 잘 알수 있다. 합동연설회장소에서 《국민의힘》을 폭로단죄하는 규탄대회를 소집한 대학생들은 보수패당의 죄악들을 털거하고 특히 5.18만행은 한 이천의 원인을 당형위원장으로 앉혀놓은것, 민생관련현안에 대해 많은 반대를 해온것 등을 폭로하면서 반당당의 해체를 요구해나섰다. 거짓말을 잔여찌며 되살아나보려고 잔여를 부리는 보수패당에게 또다시 기만당하면 골짜기 광주대학살만행이 되풀이될수 있다는것이 전라도민심의 공통된 견해이고 주장이다. 본사기자 주광일

《환골탈태》, 과연 가능할가

《국민의힘》이 《변화》와 《혁신》을 하자면 《환골탈태》해야 한다는것이 당안팎의 주장이다.

권력야심가들의 란무장

이선류구, 진흙광속의 개싸움이라는 이 말은 특히 예비정선을 통해 8명의 당대표후보들 최근 남조선의 《국민의힘》안에서 벌어지는 당권 을 5명으로 압축한 이후 벌어지고있는 싸움이 더욱 불만 하다.

《〈5+4〉 : 0》

《국민의힘》의 계파대결, 신구대결이 마감에 이르러서 조선과 중진이라는 구도도 종착되었다고도 볼수 있다. 《정치초년생》이 일컫는 《돌풍》을 우려하는 중진들속에서는 《이제는 중진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정말 당권을 넘겨줄수도 있다는 위를 겁이 크다.》라고 예측하기도 한다. 지어 《애송이》가 당선되면 탈당하겠다는 인물들도 있다. 중진들의 이러한 움직임에 그 《애송이》는 《(5+4)가 0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마법을 계속 보여드리겠다.》고 자신있게 말했다고

《〈5+4〉 : 0》

《국민의힘》의 중진들이 얼마나 모지름스고 《정치초년생》이 얼마나 날뛰는가를 보여주는 대진표라고 할수 있다. 그보다는 권력에 환장한 정치간상배들의 서식장, 언제 가도 구태정치에서 벗어날수 없는 적폐집단, 정치적청야들의 란무장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라고 하는것이 더 옳을것이다. 본사기자 김광혁

서로 수판알을 튕기는 보수정치판

입을 짝 씻고 서로 으르렁고치고있다. 우직스러운 《국민의힘》것들은 전 원내대표가 앞장서 《국민의 당》과의 합당, 전 검찰총장의 영입을 떠들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자 어디 두고보라며 《자강론》을 내들었으며 저들이 보수의 중심이 되었다고 큰소리치고있다. 대추적인과 정치정경들을 갖춘 인물들로 당지도부를 구성한다. 선거에서 이길 후보감이 될만 한 인물들을

최근 남조선정계에서 《국회》인사청문회제도에 대한 개편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있다고 한다. 《국회》인사청문회제도는 2000년에 《대통령》의 인사독판직권을 견제한다고 하면서 미국의 청문회제도를 모방한것으로서 그에 대한 개편문제는 역대 《정권》교체가나 개각때마다 주요정책거리로 되어 왔다고 한다. 그것은 자본주의정치제도의 생리로부터 참신하고 건전한 인물을 고위공직자로 고르기가 쉽지 않은데도 있지만 청문회를 당리당락실현을 위한 공간으로, 정치적상대를 견제하고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는 남조선정계의 뿌리깊은 악습과도 관련되어있기 때문이다. 초보민심에 의해 권력의 자리에서 밀려나 야당으로 전략된 보수세력이 지난 수년간 그에 대한 앙갚음으로 현 《정권》을 《실재한 정권》으로 만들겠다고 고야대며

《국정》운영을 사사건건 방해해온것은 잘 알려져있다.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옷이 없었던 했지만 남조선의 인사청문회를 보면 집권자나 내세운 인물들에 대한 《흠집내기》, 《혹색선전》이란 무하고 지어 가족, 친척, 친우들의 사생활까지 들추어내

말썽거리로 된 《국회》인사청문회제도

여 망신을 주기가 일쑤여서 청문회가 아니라 개싸움장, 비열한 정치복부무대로 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청문회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송곳검증》을 이겨내지 못한 후보들이 현이 자진사퇴하는 《인사참사》사태가 발생하고 장기간의 행정공백으로 정책추진에 심각한 진통을 겪기도 하였다. 보수야당은 이를 기회로 《최악의 인사실례》라는 오

《국회》인사청문회제도에 대한 개편문제가 또다시 론의 된다고는 하지만 정치권 문가들과 여론들은 여야가 바뀔 때마다 《국회》인사청문회를 대하는 립장이 대립되고있기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실현불가능하다고 분석하고있다. 승냥이가 날고기를 넘겨다 보는것은 생리인것처럼 저들의 정치적리해산과 권력야망을 위해 물고뜯는 그 버릇을 버리지 못한다면 아무런 개혁을 하고 혁신을 해도 《그 식이 장식》이 될것이라는것이 남조선민심의 평이다. 본사기자 전명진

《굴욕적한일관계개선 받아들일수 없다》

최근 남조선일본관계가 미국의 중재하에도 불구하고 계속 악화되고있다고 한다. 미국의 고위관료들이 일본, 남조선순회방학을 련이어 벌려놓고 쌍방관계개선의 입김을 불어넣는가 하면 5월초에는 미국이 유럽의 어느 한 나라에서 《한》일외교장관회담을 중재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하지만 남조선일본관계는 계속 악화되고있다고 한다. 사실 남조선에서 반일감정이 격화되게 된것은 과립치하기 그지없는 일본당국의 오만무례한 행태때문이다. 이에 대해 남조선신문 《헤럴드경제》를 비롯한 언론들은 미행정부가 남조선과 일본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하였지만 관계개선에 큰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강제징용대법원판결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판결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표명

하지 않는 이상 대화에 응할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있다. 더구나 최근 일본의 방사능오염수방류방침과 도쿄올림픽위원회 의 독도표기 등으로 민심의 반일감정이 더욱더 높아졌으며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다고 전했다. 사실이 이러한에도 엄청난 죄를 지은 일본이 태도변화를 할 대신 저들은 하등 잘못이 없고 누구의 잘못인듯이 오히려 사대질을 해내고있어 악화된 관계가 풀릴리 만무한것이다. 가관은 남조선당국이 미국의 압력에 못이겨 일본군성노예합의를 공식인정하고 강제징용피해자배상문제를 비롯한 《한》일간의 주요현안들을 대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비굴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것이다. 지난 5월 상순 남조선당은 일본을 찾아가 《국정원》원장을 통해 《한》일협력과 관계개선을 희망한다는

내용으로 된 《구두천서》를 일본당국자에게 전달하게 하였는가 하면 부임되지 못할 만야 신임장을 제출한 일본주재 남조선대사는 《한일 관계를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나가기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열변진 소리만 늘어놓았다고 한다. 과거죄악에 대한 사죄와 배상은커녕 력사외무과 독도갈탈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는 친년속적의 망동은 문

제시할 대신 할 소리도 못하고 상진의 눈치를 보면서 관계개선을 구걸하는 남조선당국의 비굴한 모습은 각계층의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남조선의 민주로총을 비롯한 로동운동, 시민사회단체들이 《굴욕적인 한일관계개선 받아들일수 없다.》고 웨치며 련일 집회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있는것은 응당하다 해야 할것이다. 배영일



광주민병기를 외곡모독하는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남조선주민



남조선에서 일본의 《육일기》가 불타고있다.



평양의 특이한 가로수풍경 (7)

려명거리의 잣나무, 전나무구획



려명거리에 있는 려명려관주변에 잣나무, 전나무 등 바늘잎나무들이 키돋움하며 자라 길가는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있다. 려명거리특화관리소에서는 바늘잎나무들을 3~4그루씩 밀집으로 심어 가꾸고있다. 이 나무들은 20여년 자란 나무들이라고 한다. 푸르러 설레이며 즐지어 서있는 바늘잎나무들의 모습은 마치 정렬해있는 명예위령대를 보는것만 같다. 잣나무나 전나무는 질이 좋아 가구재, 건축재, 선박재, 합판재 등 여러가지 귀중한 목재로 쓰인다. 또한 잣나무의 잣씨는 그대로 먹을수 있고 기름을 짜서 보약으로도 쓰며 여러가지 로리에도 쓴다. 수명이 300~400년인 전나무는 모양이 곱고 잎이 사철 푸르심상하여 공원이나 유원지에 많이 심으며 정유는 캅라원료로, 나무진은 공업용, 약용으로 쓰이고있다. 참으로 보기에도 좋고 사람들의 생활에 유용하게 쓰이는 보배나무들이다. 마치 숲속에 들어온듯 상쾌한 기분을 안겨주는 바늘잎나무들은 거리의 풍치를 돋우고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더해주고 있다. 본사기자 리 절 민

성능좋은 의료기구들을 개발생산한다

공화국의 묘향산의료기구공장에서 성능이 좋은 각종 의료기구를 개발생산하고 있다. 공장에서는 생산을 확대하고 제품의 질과 국산화비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현재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치과종합치료기와 이비인후과종합치료기를 새로 개발하였다. 이 치료기들에는 각종 영상장치와 수감장치들이 달려있어 기능이 보다 현대화되었으며 환자들이 치료를 받으면서 자기가 앓고있는 병을 알수 있게끔 설계되어있다. 이곳에서는 민승수술대도 만들고있는데 등관울리기와 내리기기능, 좌우로 기울이기 등 갖가지 기능이 있어 복잡한 외과수술을 모두 이 수술대에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고 한다. 지지부분을 수지로 만든 부인진찰대와 해상대도 보기도 좋고 성능 또한 우월하다고 한다. 공장에서는 생산공정을 현대화하여 의료설비들을 다양한 형태로, 마음먹은대로 제작하고있다. 이곳에서 만드는 진찰침대와 환자운반침차, 환자침대들도 매 기구마다 특성에 맞게 기능이 다양할뿐 아니라 편리성을 최대로 보장하고있다. 이밖에 수술장용의료기구들과 원심분리기를 비롯하여 새로 개발한 제품들이 40여종이나 된다. 공장에서는 거둔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설비들의 기술갱신과 새 제품개발사업, 필수의료설비개발기술의 도입 등 보건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다그치고있다. 본사기자



국가비밀전문화유산

묘향산은 아름다운 경치를 이루고있을뿐 아니라 유구한 력사가 깃들여있는 산으로 유명하며 그와 관련한 전설도 매우 많다. 우리 민족의 건국조인 단군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기본으로 엮은 전설 《단군고과 단군》, 고대신화의 하나인 《해모수신화》를 묘향산의 자연지물과 결부시켜 반영하고있는 전설 《선유봉과 해모수》 등을 들수 있다. 또한 반질락투쟁과정에 발휘한 우리 선조들의 애국적위훈을 찬양한 전설들도 있다. 묘향산의 락기봉에는 13세기 전반기 외적을 쳐 물리치는데서 큰 역할을 한 김취려장군과 관련한 이야기가 깃들여있다. 락기봉의 형성유래를 보여주고있는 이 전설에는 외적을 정벌시킨 김취려장군과 고려군의 승리를 자기 교양의 큰 자랑으로 여기며 후세에 길이 전하려는 이곳 사람들의 지향과 념원이 반영되어있다. 두봉화와 편월에 대한 전설에서는 연약한 몸이지만 살륙과 락탈을 일삼는 외적과 맞서 끝까지 싸운 조선녀성들의 강한 투쟁정신과 민족적 절개를 찬양하였다. 임진조국전쟁시기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한 애국적인 승려를 찬양한 전설들도 적지 않은데 《전란을 예고해준 풍경소리》, 《서산대사의 특환장이아기》 등이 그에 속한다. 뿐만아니라 《금강굴》, 《오선봉》, 《인호대》, 《용연폭포》, 《명안수》, 《사자폭포》, 《감로수와 동몽룡》과 같이 묘향산의 자연풍치와 민족의 슬기와 재능이 깃든 력사유적들의 유래를 밝힌 전설들도 있다. 본사기자

새 과학영화를 제작 -조선기록과학영화촬영소에서-

조선기록과학영화촬영소에서 새로운 5개년계획수행을 위해 질실하게 나서는 과학기술문제들을 종자로 한 여러편의 새 영화를 제작하였다. 촬영소의 일군들과 창작가들은 실용성있는 과학기술성과들을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수 있도록 영화화 원리적으로, 통속적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과학영화 《굴진속도를 높이는 새로운 발파기술》에서는 탄광, 광산들에서 굴진속도를 종전에 비해 1.5배 이상 높일수 있는 효율적인 발파방법을 상세히 보여주고 있다. 농업생산을 높이고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를 다그치는데 이바지하는 과학영화 《람색세균에 의한 토양개량》, 《이동식강병이종합탈곡기 (비밀-2)호》는 저수확자를 육도로 전면시켜 작물생산을 늘일수 있게 하는 선진농기술에 대해서와 적합한 장소로 이동하며 리용할수 있고 난알릴기능이 높은것으로 하여 도입일반화가치가 큰 탈곡기의 성능에 대하여 소개하고있다. 과학영화 《다기능연유절약기》는 료전지재, 선박 등의 기관수명을 연장시키고 연유소비와 유해가스방출량을 줄이는 여러가지 기능을 가진 연유절약기의 구조작용원리를 설명해주고있으며 과학영화 《폴리우레탄발포제와 리용》은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다양한 용도에 쓰이는 합성재료의 조성과 생산공정, 리용분야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소금생산의 공업화를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과학영화 《바다물농축용이온교환막에 의한 소금생산》은 많은 부지와 로력을 절약하고 기후조건에 영향을 주여지지 않는 실리있는 생산방법에 대하여 보여주고있다. 이밖에 《풍광원천》을 비롯하여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는 과학영화들도 창작되었다. 본사기자

생강차와 여름철의 인체건강

여름철에 사람들은 더위를 참기 어려워 가정과 사무실, 차안에서 공기조화기를 리용한다. 《공기조화기병》은 이에 따라 생겨났다. 여름철에 공기조화기가 있는 방에 너무 오래 있으면 쉽게 감기에 걸리는 동시에 땀도 나지 않는것으로 하여 머리아픔과 메스껍기, 입맛없기, 설사 등의 증상들이 나타난다. 특히 여름철에 사람들은 찬 음식을 너무 먹어 쉽게 《랭동기병》에 걸린다. 《공기조화기병》과 《랭동기병》은 사람들의 몸에 쉽게 랭이 침습하게 한다. 생강은 랭기를 뭍음으로 내보내며 땀을 내게 하는 효과를 나타내므로 생강을 끓여 마시면 《공기조화기병》이나 《랭동기병》을 예방 및 치료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생강차를 만들려면 한번에 3~5조각의 생강(5~10g)을 끓는물에 넣으면 된다. 생강차는 반드시 더울 때 마셔야 한다. 그것은 《공기조화기병》이나 《랭동기병》이 모두 폐와 위액이 침습하여 초래된 것이라 하는 생강차를 마셔야 몸안의 랭기를 뭍고 땀이 나는데 도움을 주어 독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면역을 높일수 있기때문이다. 본사기자

사화 림제와 화전놀이 (5)

《백호선생말씀처럼 허가 따라넘어갈만큼 우리네 화전이야 별맛종의 별맛이지.》  
《우리 나라 만가지 민족 음식가운데 목젓에 기별도 없이 훌쩍 넘어가버리는 음식이 하나 있으니 그게 바로 이 꽃지집이요.》  
《화전의 진미를 모르코야 어찌 봄을 안다 하랴.》  
농군들이 즐기기에 따라오며 림제는 눈앞에 림제는 무척 감동되었다.  
《흙소, 천만번 흙소! 헌데 그게 어디 화전뿐이요.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 후대에 물려준 풍속이야 전부가 훌륭하지, 훌륭해!》  
이보다 더 절절한 격찬의 말을 찾지 못해 안타까와하던 림제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다른 광경에 더욱더 가슴이 뜨거워졌다.  
림제의 곁에서 한 농부가 술잔을 들고있거나 맞은편 번쩍로 다가가더니 어떤 사나이에 잔을 들러주는 한편 다른 한손을 그의 어깨에 얹고 가벼이 흔들며 《이보게 장서방, 그사이 날 많이 육했지, 자네 딸 혼사에 간언질을 했다구. 난 그 때 나쁜 마음은 꼬들무 없이 그저 신랑견 사람이 묻는 말에 사설을 말한다고 한마디 뻔뻔것이 그만 동리가 나서 그밖에 파혼이 났던 했으니... 내 잘못했네, 내 오늘 자네에게 용서를 비네.》하고 진심어린 사죄를 하는 것이었다.  
《정말 난 그동안 썩어지라구 자네를 육했어. 본의든 아니든 자네 내게 해를 끼쳤거든. 그런데 다른 날두 아닌 이 좋은 명절날에 화의를 청하니 내 기꺼이 받아들여네. 이처럼 좋은 날에 자네의 그 사죄의 말 한마디에 내 가슴의 욕구메미도 다 러지고말았다네. 우리 오늘로써 지나간 일들을 말코 잊자구.》  
권하는 잔을 받아들고 헌헌한 어조로 대답하며 한잔 술을 단숨에 쭉 들이키는 모습에 사죄를 청한 사람은 너무도 감지덕지해하였다.  
또 다른 광경도 림제의 감동을 자아냈다.  
번쩍들이 늘어선 저쪽 끝에 마의 화상로인이 젊은 사람 하나를 데리고 오더니 림제앞에서 화전을 부치고있



《화상어른님, 그 말씀은 제 마음에 깊이 새기고 언제나 잊지 않으렵니다.》라고 뜨겁게 사의를 표하였다.  
안골래도 어찌나 감동이 컸던지 두눈에 눈물이 그렁하여 기꺼이 대답하였다.  
《내 사위가 내 사위지, 잘못이야 고치면 되는거지, 허물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구. 손벽두 마주쳐야 소리난다구 우리 딸년이 이미 저서 특특 대담질을 했을래니 사내배짱에 주먹이 왜 나가지 않았겠나. 아무쪼든 내 딸이 더는 주먹질경을 하지 않게 됐으니 이 아니 기분 일인가. 우리 사위가 도량이 있어, 아무렴.》  
녀인은 사위의 어깨를 두드려주면서 화상로인앞에 절

민족요리

오리고기송이버섯찜

오리고기송이버섯찜은 몸보신에 아주 좋은 음식이다. 오리고기는 만문하고 맛이 좋으며 영양가도 높다. 오리기름은 소화흡수가 잘되며 동맥경화증을 비롯한 여러가지 병의 발생을 막는다. 송이버섯은 몸을 튼튼하게 하고 소화기에 좋은 영향을 주며 아픔을 멎게 한다. 또한 함양약이나 리노약으로도 쓴다.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음식감으로 오리 1마리, 송이버섯 200g, 일 때 소금 6g, 간장 10g, 기름 20g, 소주 5g, 조청 5g, 파 20g, 마늘 5g, 고추 30g, 생강 5g, 후추 1g, 농마 5g을 준비한다.  
우리는 토막으로 썰어 간장, 소금, 후추, 소주, 조청, 파, 생강, 마늘을 두고 재웠다가 색이 나게 지지고 송이버섯은 편으로 썬다.  
지진 고기토막을 찜질부분이 밀로 가게 그릇에 담은 다음 재웠던 재료들과 송이버섯편을 두고 봉하여 꼭 쥘다.  
찜 오리고기토막과 송이버섯을 그릇에 담고 썬 고추와 농마를 둔 자체즙을 쳐서 낸다.  
본사기자



《서로서로 마음속 그늘을 씻고 화목을 이룩하니 하나의 보배로다.》  
《맑은 물에 발을 씻고 한 몸을 보호하니 이 아니 보배인가.》  
《어머니의 머리칼을 들여다보며 물었다. 《어머님 왜 흰머리카락이 있나요?》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머니한테 흰머리카락이 들어난단다.》  
《딸에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하였다. 《난 이젠 외할머니의 머리칼이 희어진 까닭을 알겠어요.》